

마크 선수가 ‘4번’ 배정 땐 삼복승 고려하라

〈초주선행:初走先行〉

선행 강자 한명일 경우 유리한 전개
결승전 라인 구도 땐 초주선행 유리
경륜뱅크 “편성의 흐름 잘 따져봐야”

경륜에서 4번을 배정받은 선수는 출발 총성과 동시에 대열 선두에 나서며, 다른 선수가 앞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위치의 변경 없이 앞서 주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체력의 적절한 안배와 치고 나설 타이밍이 중요한 경륜에서 선두로 경주를 풀어간다는 것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대열 선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칫 너무 긴 거리 승부가 될 수 있고, 때릴 타이밍을 재고 있다가 뒤에서 갑자기 치고 나오는 선수에게 덮이면서 내선에서 고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재국 경륜뱅크 예상팀장은 “초주선행(初走先行)은 불리하다는 인식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편성의 전개가 확연히 드러날 경우 내선마크를 노릴 수 있는 마크 선수에게는 초주선행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결승전 같은 경우 초주선행을 배정받은 선수를 포함한 팀이 초반 대열의 앞 선에서 경주를 본인의 의지대로 풀어갈 수 있는 만큼 무조건 좋고 나쁘다를 따지기 전에 편성의 흐름과 라인의 구도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마크 선수가 초주선행일 경우

순발력이 좋고 승부욕이 강한 마크 선수가 초주선행을 배정받을 경우 삼복승에서 선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치고 나설 선행 선수가 확실하고 그 선행 선수를 활용할 강자가 한 명일 경우 마크 선수들의 집중력은 최고치에 달



다른 선수가 치고 나가지 않는 이상 대열 선두 자리를 지켜야만 한다. ‘4번’의 운명이다. 파란색 경기복을 입은 4번 선수(맨 왼쪽)가 초주선행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을 수 있다.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본인이 마크할 타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선행 선수가 완급조절에 어느 정도 익숙한 선수라면 내선을 선점하고 받아 가기를 노릴 수 있는 4번에게 더욱 유리한 전개가 나올 수 있다. 편안하게 초주 축 선수를 마크한 중상위급 선수가 내선을 선점한 4번의 터프한 운영에 마크 자리를 빼앗기면서 나오는 좋은 배당은 덤이다.

●추입형 강급자가 초주선행일 경우

보통 득점 상위자나 인지도에서 앞선 강급자들은 초주선행을 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도전선수들에 의해 초주선행에서 벗어나다. 하지만 종합득점이 아무리 높아도 추입형 선수라면 초주선행이 해

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대부분의 팬들과 예상 전문가들이 “이 선수라면 충분히 인정받을 것 같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초주선행이 해제되지 않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오기 때문이다. 인지도 하위의 선행 선수도 타이밍만 잘 잡는다면 추입형 강자를 따돌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주 패턴은 특히 일요경주에 잘 나오고 초주선행을 배정받은 강자를 위협할 수 있는 선행 선수를 중심으로 이번 전략을 세운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결승전에서 라인 구도가 나올 경우

초주선행이 언제나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결승전 경주에서 라인 구도가 나

올 경우 초주선행인 선수를 포함한 쪽이 경주를 유리하게 풀어갈 수도 있다. 3:4로 양분된 구도나 2:2:3으로 삼분된 구도 모두 초주선행을 포함한 라인이 대열 앞선을 차지해서 다른 선수들보다 짧은 동선으로 체력을 덜 소비하며 경주를 풀어갈 수 있다. 특선급의 S급 강자들이 모인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편성된 모든 선수들이 한 바퀴 반 이상의 선행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초주선행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라인의 선두에선 선행 선수가 타중 전후로 상대 라인의 선행 선수가 치고 나올 틈도 주지 않은 채 빠르게 치고 나서서 3, 4코너 부근까지 지속을 유지하며 아군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재개장 기다리는 경정, 선수 몸무게 변화에 주목

체중 2~3kg만 늘어도 큰 영향
강한 승부욕…스타트 감각 변수

경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2월 23일부터 휴장 중이다. 긴 공백인 만큼 개장한다면 사전 체크할 부분이 많다.

최우선적으로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몸 상태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휴장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인 체력 훈련 정도가 최선이었던 선수들이 스타트 감각을 찾거나 수면 상태, 날씨, 바람 등에 적응하기까지는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스타트는 한 번 감을 놓치

면 성적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선수들의 몸무게도 상당히 중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야외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체중이 늘어났을 가능성도 높다. 경정 선수가 2~3kg 몸무게가 늘어난다면 실전 경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개장 됐을 때에는 휴장 전의 선수 몸무게 상태를 반드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험 많은 고참급 선수들은 개장 후 빠르게 적응할 가능성이 높지만, 신인급 선수들은 컨디션 난조가 올 수도 있다. 경주 상금은 선수들 수입과 직결된다. 휴장기간이 길었던 만큼 강한 승부욕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성이나 모터 성능에 따른 이번도 고려해야 한다.

정용운 기자



2월 23일 이후 중단된 경정이 재개된다면 공백기간이 긴 만큼 선수들의 컨디션과 몸무게 등 여러 가지를 점검해야 한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벤토맨, 4월 벤틀 헤택 이벤트 응모 30일 마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인 벤토맨(www.betman.co.kr)이 적절한 벤틀로 원하는 경품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4월 ‘벤틀 헤택’ 이벤트의 응모마감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벤틀’이란 벤토맨 회원들이 투표권을 구매할 때마다 적립되는 포인트로, 더욱 건전한 투표권 구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토토 팬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지금까지 꾸준히 벤틀을 모으거나 남은 벤틀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보유 개수에 따라 원하는 경품을 선택하면 된다. 응모와 동시에 벤틀은 차감되며,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재적립은 불가능하다.

4월 벤틀 헤택 이벤트에선 어느 때보다 푸짐한 경품을 준비했다. 먼저 LG전자 울트라PC(1개)를 비롯해 쿼드 전기압력밥솥(2개), 애플 에어팟 프로(2개), 삼성전자 블루스카이(2개), 브라운 시리즈8 면도기(2개), 테팔 차탕기 인퓨자(3개), 클락 미니 마사지기S(5개) 등 다양한 경품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더욱이 이번 이벤트의 경우 마감일인 이달 30일까지 중복을 통해 무제한 응모가 가능해 경품 당첨을 위한 많은 토토 팬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당첨자는 각 경품 이벤트 마감 후 5일 이내에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벤토맨의 벤틀 헤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리머니 실루엣 보고 축구선수를 맞춰라

토토 페이스북 그림자 퀴즈 축구편
10명 추천해서 도넛 기프티콘 증정

“그림자 퀴즈 이벤트 참여하고, 도넛 기프티콘도 받아보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sportstoto.toto,proto)을 통해 22일 자정까지 세리머니 실루엣과 힌트를 보고 떠오르는 국내 축구 선수를 맞추는 ‘그림자 퀴즈 축구편’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스포츠토토 페이스북 내 페이지를 방문해 출제되는 문

제를 확인한 뒤 정답을 댓글로 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시된 퀴즈에선 총 8명의 세리머니 실루엣이 등장하며, 힌트는 각각 ‘축구천재’, ‘거신육’, ‘대박이 아빠(구 라이언 킹)’로 주어졌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스포츠토토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해 ‘좋아요’를 누르고, 각 이미지에서 연상되는 축구선수를 댓글로 남기면 된다.

이벤트 당첨자는 24일 발표될 예정이며 정답자 1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도넛을 구매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토토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경륜·경정 임시휴장 5월 7일까지 연장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경륜·경정 임시휴장 기간을 5월 7일까지 연장한다. 2월 23일 긴급 임시 휴장을 결정한 이후 추가 휴장을 거듭해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비상경영계획을 세워 전사적인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개장할 경우 경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테스트를 하며 민간의 준비를 하고 있다. 경륜경정총괄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다소 완화되는 조짐이기는 하지만 간헐적인 집단감염과 해외 유입자 등에 의한 확산 위험도가 있다”며 “경주 재개 여부는 정부 방침과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륜선수 자율훈련 안전 대책 마련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경륜선수들이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는 안전 대책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현재 대부분의 경륜선수들은 각 권역별로 팀을 구성해 자율적으로 훈련하고 있다. 도로 훈련의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 선수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은 도로 훈련을 지양하고 개인 또는 권역별 팀을 구성해 훈련할 때 사이클 경기장 9곳(광명경륜장, 전국 8개소)의 이용료와 각종 실내 훈련 장비를 지원한다. 또한 은퇴한 경륜선수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선수들이 훈련할 때 안전을 지키는 ‘자율 훈련 안전지원관’을 선발했다. 이들은 5월 초부터 각 권역별로 배치되어 경륜선수들의 안전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용운 기자

